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김 경 아 장 혜 인[†] 전 진 용 홍 진 표[‡]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삼성서울병원

본 연구는 가족이 생존해있으나 만날 수 없는 모호한 상실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적응의 과정을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경험과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북 가족과 이별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1명과 일대일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28개의 개념을 추출하였고, 이를 다시 39개의 하위범주와 19개의 상위범주로 재구성하였다. 각 범주를 관통하는 핵심 범주는 '공존과 상존 자각을 통해 모호한 상실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감'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모호한 상실 상황 및 적응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모호한 상실 상황에 대처해갈 수 있는 심리사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모호한 상실, 가족 상실, 근거이론, 질적연구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HM15C1072).

본 논문은 2019년 한국심리학회 Doctoral Colloquium(2019년 2월 13일, 서강대학교)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 교신저자: 홍진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Tel: 02-3410-3585, E-mail: suhurhong@gmail.com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 6월 시점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 인구 수는 약 33,022명으로 추산된다(2019, 통일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차 세대적, 젠더적, 계층적으로 다원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 또한 다각도로 강조되어왔다(김다운 외, 2018;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한나, 이승연, 201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심리학 선행연구는 크게 문화적 적응, 경제적 적응, 그리고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외상,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 정신건강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김승현, 최빛내, 2013;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이민지 외, 2016; 조영아, 김연희, 2010; 한나, 이승연, 2015).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마땅히 중요한 과업이나 이와 더불어 본질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한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연희 외, 2010; 김현경, 엄진섭, 전우택, 2008;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들에서 특히 가족 관련 변인들은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김대웅, 이순형, 2017; 김유정, 2011; 손명아, 김석호, 2017; 조영아, 2012; 조하나, 최연실, 2013; 진미정, 김상하, 2018).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및 입국의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김희정, 이순형, 2016), 가족 분리 및 해체, 새로운 가족 형성 또는 기존 가족과의 재결합, 이로 인한 가족 갈등 등 가족 단위 내에서 다양한 관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김희정, 이순형, 2016; 노진원, 김현아, 김유정,

박현준, 우종민,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65.2%가 가족과 이별한 경험이 있었고(김연희 외, 2010), 여러 외상 사건들 가운데 이러한 가족 해체가 가장 높은 수치(69%)로 보고된 바 있다(김태국, 정은의, 2014). 가족 및 친밀한 대상의 사망으로 인한 단절 경험(52%)보다도 높은 빈도였음을 고려할 때 가족 관계적 측면, 특히 가족과 이별한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및 심리적 건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특수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북한의 가족이 피해를 입는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 및 생계에 대한 염려가 크다. 그러나 소통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이들의 생사나 안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명확한 상황은 심리적 고통감을 가중시키며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양가적인 상황에 봉착되게 함으로써 개인의 대처를 무력화시킨다(김대웅, 이순형, 2017; 조영아, 전우택, 2005).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지만 탈북 이후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 가족들의 탈북을 도와 남한에서 재회하는 것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힘든 결정이다(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조영아, 2012; 조하나, 최연실, 2013; 한인영, 이소래, 2002). 가족들이 무탈하게 살아있는지, 살아있어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고, 심지어 가족들이 위협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뿐 아니라 불안감, 무력감 및 절망감, 그리고 죄책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야기한다(이명순, 박경, 2011; 정유진, 최빛내, 2017; 조영아, 김연희, 2010;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이는 헤어진

가족을 데려오는데서 발생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킴으로써(이혜린 등, 2019) 남한 생활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이처럼 가족과 떨어져 있고 소통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은 심리적 장애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며(Chung & Kagawa-Singer, 1993), 관계의 단절 및 물리적 부재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상실의 맥락으로 조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상실 맥락은 분단 체제 하에서 소통과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명확함, 종결 지점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상황적인 모호함이 주된 특징이다. 또한, 물리적으로 부재한다는 점에서 상실감을 야기하지만 상실 대상이 생존해있고 동시간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므로 상실이라고 명확하게 인지되기는 어렵다. 이는 Boss(1999)가 개념화한 모호한 상실(Ambiguous Loss)의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모호한 상실 이론(Ambiguous Loss Theory; ALT)에서는 ‘상실되었으나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또는 ‘상실되지 않았으나 상실된 것과 같은’ 두 가지 상실 유형을 제안한 바 있다(Boss, 1999; Boss & Years, 2014). 구체적으로, 첫 번째 유형은 물리적으로 모호한 상실(Physical AL)이다. 이는 친밀한 대상이 물리적으로는 부재하나 상실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심리적으로는 그 존재가 지속되는 유형이다(Type I AL; Physical absence with psychological presence AL). 가족 구성원의 실종, 납치, 입양, 이혼, 그리고 이민 등과 같은 상황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심리적으로 모호한 상실(Psychological AL)이다. 이는 친밀한 대상이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 부재하는 것과 같은 유형

이다(Type II AL; Psychological absence with physical presence AL). 가족 구성원의 치매, 뇌손상, 자폐, 약물 및 도박 중독, 만성 질환 및 심한 수준의 정신장애 등과 같이, 정서 및 인지적인 손상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용될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죽음으로 인한 관계 상실은 객관적인 종결 지점이 명확하므로 명료한 상실(Clear Loss)에 속한다. 이와 다르게 모호한 상실은 친밀한 대상이 존재하는지 또는 부재하는지에 대한 지각이 불분명하므로 상실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화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상실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게 된다(Boss, 1999, 2006, 2007, 2016). 한 개인 또는 한 가족 내에서 모호한 상실의 두 유형이 동시에 경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중의 모호한 상실(Dual AL)’로 명명할 수 있다(Boss, Beaulieu, Wieling, Turner, & LaCruz, 2003; Falicov, 2002; Wahlig, 2015).

모호한 상실 상황은 대상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정 경험이 명료화되기 어렵다(Boss, 1999). 우울, 불안, 죄책감, 무력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야기되지만 이를 자각하고 명명하는 과정조차 이뤄지지 못하므로 모호한 상실감은 해소되지 않은 채 잔존하게 된다. 애도되지 못한 감정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소외와 단절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실 대상 이외의 타인 간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Boss, 2007, 2016). 이때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의 근원은 상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상실 상황에 더해진 모호함으로 볼 수 있다(Boss, Bryant, & Mancini, 2016).

이러한 모호한 상실의 맥락은 가족과 이별한 상황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적

용될 수 있다. 북한의 가족이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부재하므로 첫 번째 유형의 모호한 상실(물리적인 모호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해외 선행 연구에서 이민자 또는 이주 노동자 가족들의 모호한 상실과 이들의 적응 과정을 다룬 바 있다(Falicov, 2005; Juang et al., 2018; Solheim, Zaid, & Ballard, 2016; Solheim & Ballard, 2016). 이민자, 이주 노동자, 해외로 파견된 군인과 같이 모호한 상실 맥락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떠나 온 환경과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불안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들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보고하는 심리적 경험과도 유사하지만, 이들의 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행하면서 탈북을 시도하였고 분단 체제로 인해 가족과 분리될 수 밖에 없었던 아픔을 지니고 있다. 자발적으로 분리되었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이민자 집단과는 달리, 탈북 결정을 반복할 수 없고 자신의 탈북 결정으로 인해 재북 가족들이 위협해질 것을 수시로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살아간다.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은 분단 상황과 맞물린 사회구조적인 맥락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만,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탈북하였다는 자책감과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은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환원된다. 가족에 대한 염려와 이로 인한 적응의 문제가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조영아, 2009).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상실 경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개입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

물려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 남한에서 사회적인 공감과 이해를 받기보다는 무관심과 무시,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하며 대인관계 내에서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박은미, 정태연, 2018). 같은 민족의 일원임에도 융화되기 어려운 이질감과 소외감,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들은 가족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상실감과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이민자, 이주노동자의 상실 경험과 차별화되는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 상황을 토대로 하여 모호한 상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이 모호한 상실 상황에 속해 있고, 가족과의 이별이 남한 생활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적응의 과정을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 국내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머니 상실 유형 중 하나로 모호한 상실 집단을 구분한 바 있고(김대웅, 이순형, 2017), 부모와 이별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아동들이 모호한 상실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언급한 국내 연구들(김희정, 이순형, 2016; 조영아, 2012)이 소수 존재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모호한 상실 집단을 구분한 김대웅, 이순형(2017)의 연구에서는 명확한 상실, 모호한 상실, 그리고 비상실 유형에 따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응 생활을 비교한 바 있다. 이때, 사망으로 인한 관계 단절은 명확한 상실로, 생사 확인이 어렵거나 살아있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는 모호한 상실로 분류하였으며, 어머니의 물리적인 부재를 일시적이라 여기거나 심리적인 연결 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실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명확한 상실과 비상실 집단의 청소년들은 모호한 상실을 경험하는 청소년들보다 외상 극복이 빨랐던 반면, 모호한 상실 집단의 청소년들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과 현실 적응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균형의 문제를 겪었으며 재회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가장 높게 보였다.

김대웅, 이순형(2017)의 연구는 부모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맥락을 세분화하였고 모호한 상실을 경험적으로 구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모호한 상실 집단 외에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이 연구에서 명명한 비상실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헤어진 어머니와 재회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참여자들 스스로 현재 상황을 상실이 아닌, 일시적인 분리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비상실 집단은, '어머니가 생존해있지만 현재 곁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모호한 상실 상황에 이미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모호한 상실은 객관적인 상황적 요소(예: 물리적인 부재 유무, 상실에 대한 정보의 명확성)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양상(예: 지각된 상실 수준, 재회 가능성)에 따라 상실의 맥락으로 경험되기도,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감내가 가능한 비상실의 맥락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재북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보고하지만 긍정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전우택, 2000).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향후 가족과 재회했을 때를 대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이로써 현재의 남한생활에 더욱 적극

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호한 상실 상황이 지니는 불명확한 속성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회의 희망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즉, 상실 상황 속 모호함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지점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경험을 명명하고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응의 과정 및 대처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다시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동안 다양한 집단들의 모호한 상실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모호한 상실에 대한 반응만을 결과로써 탐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Affifi & Keith, 2004), 이후 개인의 대처 요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보다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해외에서는 실종 자녀의 가족(Luster, Qin, Bates, Johnson, & Rana, 2009), 이민자 집단(Pérez, 2015), 성전환 자녀의 부모(Wahlig, 2015) 등 모호한 상실의 다양한 맥락에서 대처 및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점차 이루어져왔다. 앞서 언급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며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해가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는 다루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더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상실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심리사회적 개입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Boss(1999)는 모호한 상실에 대해 명명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이 경험의 당사자들에게 적응적인 대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실의 맥락 역시 모호한 상실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명명하여 객관화하는 것에서부터 대처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김대웅, 이순형(2017)의 연구에서처럼 모호한 상실의 한 단면이 비상실로 지각될 수 있다면 그것을 결정짓는 내·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요인들간 상호작용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며 어떠한 기제를 통해 적응적인 대처가 촉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과 이별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고, 모호한 상실 상황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을 찾아 요인들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 맥락에 초점을 둔 모호한 상실의 적응 과정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인 틀과 심리학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상황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고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야기하는가? 둘째,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도 삶을 지속해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적응하고 변화해가는가? 셋째, 모호한 상실 상황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적응 과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추적관찰 연구'의 참여자 300명 가운데, 모호한 상실 상황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1차로 선정하였다. 모호한 상실 상황은 상실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명료함이 결여된 상황 이므로(Boss, 1999)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Patton, 1990) 방식을 따랐다. 목적 표집 방식은 연구자의 판단 하에 연구 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Etikan, Musa, & Alkassim, 2016). 모호한 상실을 다룬 선행 문헌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정한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북한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둘째, 재북 가족의 생사가 불명확하거나, 생존해있어도 직접적으로 접촉 또는 소통이 어려워 안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 외, 가족을 제외한 친밀한 대상과의 이별(예: 연인, 친구)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가족 구성원의 사망을 명확하게 확인한 경우, 그리고 면담에 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지 및 운동 장애가 있는 경우는 배제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전체 300명 가운데 북한에 잔존가족이 있는 대상자들은 265명이었고 이 중 서울, 경기 지역의 거주자는 165명이었다. 거주 지역을 제한하면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므로(통일부, 2016)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박은미, 정태연, 2018). 이들 모두 모호한 상실의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번호	성별	연령	남한 내 가족	북한 내 잔존 가족	경과	소통 횟수	소통방식
1	여	65	딸, 사위, 손녀	(딸 대신 키운) 손녀들	2년	1회	동네 지인 통해 생사만 확인
2	여	24	없음	부모, 형제들	3년	0회	전혀 없음
3	여	30	배우자, 딸, 이모, 조모	부모, 형제들	2년	2회	브로커 통한 전화 연결
4	남	34	아들	부모, 배우자, 아들	2년	3-4회	브로커 통한 전화 연결
5	여	30	어머니, 오빠	아버지, 언니	5년	3-4회	브로커 통한 전화 연결
6	여	35	딸	부모, 형제들	5년	5회	브로커 통한 전화 연결
7	여	39	어머니, 배우자, 딸	자녀들	10년	1회	동네 지인 통해 생사만 확인
8	여	28	없음	아버지	8년	0회	전혀 없음
9	여	51	배우자, 아들	형제들	4년	3-4회	브로커 통한 전화 연결
10	여	42	배우자, 아들	어머니, 형제들	4년	0회	전혀 없음
11	여	50	배우자, 딸	어머니, 딸	6년	3회	브로커 통한 전화 연결

두 번째 선정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브로커를 통해 최소한의 소통이나 가능한 경우가 87명,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아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78명이었다. 브로커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여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은 유사하다고 보아 이 또한 모호한 상실 상황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1명은 모두 객관적인 모호한 상실 조건에 부합하였고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에 기재하였다.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

어졌다.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Strauss & Corbin, 1998) 방식에 따라 범주를 발전시켜 가면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창출되지 않을 때까지 즉,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1인 당 평균 2회의 면담을 진행했다. 평균 면담시간은 1회당 90-120분이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거주지 인근 사설 스튜디오 또는 자택 중 편안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자들은 원활한 면담을 위해 모호한 상실을 다룬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여 사전에 핵심질문 영역을 정하였다. 핵심질문 영역은 1) 상실 대상 및 상실 사건의 특성(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은 누구이며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2) 상실 대상에 대한 지각된 모

호함의 수준(예: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부재 대상들에 대한 감정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3) 상실 상황으로 인한 영향 및 이후의 변화(예: 살아있지만 수시로 볼 수 없는 가족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듭니까? 헤어지기 이전과 이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거나 변화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4) 상실 상황에 적응해가기 위한 대처방법(예: 어떤 상황일 때 북한 가족에 대한 감정이 더욱 강해지거나 또는 추슬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5) 상실 상황과 관련한 현재 삶의 방향(예: 이 상황을 살아오면서 새롭게 얻었거나 깨달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을 묻는 5가지로 정하였다.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표현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1차 면담시에는 ‘모호한 상실’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질문지의 적절성 및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앞의 순서에 면담을 진행하게 된 연구참여자가 4명에게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핵심 영역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을 때 4명 모두 질문의 맥락은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이해하였으나, ‘상실 상황으로 인한 영향’, ‘상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대처방법’, 그리고 ‘상실 상황과 관련한 현재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묻는 영역에서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핵심 영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하위 질문들을 추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가 급작스럽게 감정적으로 고조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감정 상태를 확인하였으

며 더 자세히 응답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면담시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자는 없었으나, 면담 종료 이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예비조사를 포함한 11명의 면담 자료는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 1인이 전사하여 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노트에 매 회기마다 기록해 둔 관찰사항(참여자의 표정, 행동, 특이사항) 또한 분석시 근거 자료에 포함하였다. 1차 면담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에는 2차 보충 면담을 통해 면담 이후 어떠하였는지를 묻고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범주들에 대해 부가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연구자가 생성한 범주와 해석에 대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참여자들이 연구주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일부 범주명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연구방법 및 분석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경험과 적응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현상 자체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다른 질적연구방법들과 달리, 근거이론방법론은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이론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Creswell & Poth, 2017). 특히 어떤 현상에 대해 적합한 개념이 확인되지 않고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리고 이론적 기반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가 질적연구방법으로써 근거이론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경험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은 중심현상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여러 조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둘째, 근거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모호한 상실 상황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회고적 경험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맥락이며 주변 요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근거이론은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모호한 상실은 모국을 떠난 이주민(Solheim, Zaid, & Ballard, 2016), 실종자 가족(Boss, Beaulieu, Wieling, Turner, & LaCruz, 2003),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Lee & Whiting, 2007) 등 다양한 상실 상황을 경험하는 대상들에게 접목되어왔다. 그러나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맥락을 모호한 상실로 조망한 모델은 부재한다. 근거이론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및 모델 개발이 목적이므로 이를 접목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경험과 이에 대한 적응 및 대처의 기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들을 변인화하여 추후 연역적 방법에 의한 검증이나 일반화를 위한 양적연구의 기초 토대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것의 분석절차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그리고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였다(Corbin & Strauss, 1990; Strauss & Corbin, 1998). 구체적으로 개방코딩의 단계에서는 면담시 수집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줄 단위 분석과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 중요한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개념들을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하위 범주로 유목화하였고, 각 하위 범주들을 다시 상위 범주로 추상화한 이후 축코딩을 하였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에 맥락화하여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과정분석과 참여자의 적응양상에 대한 유형분석을 제시하였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와 개념들을 연결지음으로써 통합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단계마다 질적연구 전문가 1인으로부터 연구자가 추출한 개념 및 범주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연구자가 유목화한 범주와 근거자료가 상이하거나 하나의 상위 범주 내에서 하위 범주간 추상성이 유사하지 않다는 피드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개월 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수시로 질적연구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1차 분석이 끝난 후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상심리전문가 2인에게 근거자료에 대한 범주명 및 패러다임 분석에 대한 타당도 점검을 요청하였고 사례가 각 범주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범주의 개방코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어 연구자가 이를 종합한 뒤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수정과 검토 작업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수

정된 개방코딩 및 축코딩의 결과와 전반적인 스토리라인(storyline)에 대해서는 포커스 그룹 면담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아동학 박사 1인과 수년 간 상담 현장에서 상실 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상담해 온 임상심리전문가 1인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코딩 및 흐름상의 이견은 없었으나, 범주명의 표현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이를 재차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의 엄격성(rigor)은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문헌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강준혁, 엄다원, 이혁구, 2017; 도승이, 2008; 임선영, 2013; Lincoln & Guba, 1985; Padgett, 2016).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의 확인이다. 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심층면담 외에 연구자 노트 및 메모,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타 연구자의 해석, 참여자를 제외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 등을 확보하여 하나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모호한 상실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하는 단체의 활동가, 그리고 다양한 상실 유경험자들을 만나 온 임상심리전문가 2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현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다. 이를 위해 연령 및 배경, 성별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추가 면담시 연구자의 해석과 패러다임 모형 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점검(member checking)을 거쳤다. 참여자들은 범주화된 결과와 연구자의 해석을 듣고

이러한 틀이 자신의 경험에 충분히 의미있게 적용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예: 남한에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 ‘불분명해지는 가족 내 경계’, ‘남한에서 함께 하는 가족의 존재’ 범주는 해당되지 않음), 이와 유사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일반화해볼 수 있을지를 점검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 및 중립성(neutrality)이다. 자료분석 과정 및 해석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이론으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질적연구 방법론 전문가 1인에게 감수를 받으며 진행하였다. 수정 단계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이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타당성과 일관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연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시했고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학회 포스터 및 구두 발표의 기회를 통해 연구자의 판단중지, 그리고 타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개시되었고(IRB No. SMC 2015-05-042-008),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윤리기준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면담 중단 가능성 및 연구 철회의 자유, 면담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후속 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 과

개방코딩 및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 분석

개방코딩을 통한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총 128개의 개념과 3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9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범주화 목록 및 해당 사례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개방코딩으로 도출된 범주는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의 각 조건에 재배열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상을 맥락화 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 제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인과적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 또는 원인이 되는 일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은 탈북으로 인해 물리적 상실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하며, <탈북으로 시작된 이별>, <가족해체 : 가는 가족과 남는 가족>을 상징했다. 모든 참여자들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게 된 가족 구성원과 작별 인사도, 기약도 할 수 없는 헤어짐을 경험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긴 이별 상황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가족을 위한 이유로 탈북을 선택했으나 모두 함께 떠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가족 단위가 해체되는 경험을 공통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 모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재감과 상실감을 감내하면서 현재 남한 생활에 정착해가고 있었다.

탈북으로 시작된 이별

탈북 계획에 대해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보위부로부터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참여자들은 가족들

과 작별조차 나누지 못한 채 말없이 나온 경우가 다수였다(참여자 1, 4, 6, 7, 8, 9, 11).

그 중 참여자 4, 6은 가족들에게 잠시 외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탈북을 감행하였으며 참여자 7은 말없이 나온 후 7년간 가족들에게 어떤 연락조차 전하지 못하였다. 탈북할 것을 알고 있던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경우에도(참여자 2, 3, 5, 10), 이토록 오랜 이별이 될 줄 모른 채 짧은 작별만을 나누고 기약도 없이 헤어졌다.

가족해체 : 가는 가족과 남는 가족

모든 참여자들은 탈북으로 인해 떠나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으로 가족이 분리되었다. 참여자들은 먼저 탈북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는 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원가족과 헤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참여자 1, 3, 4, 5, 9, 10), 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홀로 탈북을 하기도 했다(참여자 2, 6, 11).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탈북 과정에서도 복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떠나올 수는 없었다. 참여자 3, 5는 다른 형제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노부모를 남겨둔 채 탈북하였고 참여자 11은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하는 딸을 두고 올 수 밖에 없었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을 의미하며(Strauss & Corbin, 1990;1998),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 상황에서의 상실 특성이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맥락일 것으로 보았다. 이에 맥락

적 조건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보의 불명확함>, <분단된 남북 사이에서 이도 저도 할 수 없음>,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범주화했다.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보의 불명확함
분단 체제 하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소통이 허락되지 않았다. 브로커를 통해 어렵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표 2. 범주화 목록 및 근거 사례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인과적 조건>		
탈북으로 시작된 이별	작별도, 기약도 할 수 없었던 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빠한테 좀 더 건강하라고 밥이랑 뭘감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보내주겠으니 좀 더 쉬라고 좀 더 위안되는 말을 많이 할 걸... 언니한테도 아빠 잘 부탁한다는 말을 좀 더 하고 올 걸... 아마도 지금이라면 그 말 보다는, 그냥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예상치 못한 긴 헤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이렇게 영원히 떨어져 살 거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린 마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간 거지. 그 때로 돌아간다면 힘들더라도, 간다고 하면은 아빠를 모시고 왔을 거예요. 제가 죽었거나 실종됐다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혀 말을 안 하고 떠난 거라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참여자 8)
가족 해체 : 가는 가족과 남는 가족	가족을 위해 선택한 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폐개혁을 하고 저희 집도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집이 너무 말이 아니었고 점점 더 하락 추세를 보이고 하니까...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없다 싶어서 중국에서 조금씩 돈 벌어 오려고 했어요. 저는 탈북할 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가서 내 집을 도와줘야겠다, 내 부모, 형제를 내가 살려야겠다, 탈북해서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 오직 그 생각이었어요 (참여자 6)
	모두 동행할 수 없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도 데리고 오려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불쌍해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 나는 괜찮으니 너네만 가서 잘 살으라구... 그래서 같이 못 왔어요 (참여자 3)
<맥락적 조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보의 불명확함	북한 가족의 생사와 안위를 확인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딸이 중국이나 무슨 미국이나 다른데 있었으면, 같이 옆에 없어도 매일 영상 통화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북한은 저렇게 아예 딱 막아 놓으면 다 잠아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 만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통화라도 할 수 있게 했으면, 그럼 애 목소리라도 들어볼 수 있겠는데... <중략> 전화 하려면 전화하는 브로커집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딸이 장에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깐... (참여자 11)
	브로커를 통해 간신히 연결되어도 일상적인 안부조차 나누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를 하려면 거기서 국경까지 며칠 걸려서 와야하고 보위부 눈을 피해야 하고... 전화통화도 힘들죠.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믿는 거지 실제로는 어떨는지 모르지요. 돈을 보내고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자 6)
분단된 남북 사이에서 이도 저도 할 수 없음	북의 가족에게 되돌아갈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 천정 같은 거... 살아있는데,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벽이 항상 있으니까(참여자 3) 와보니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가면 내가 죽는 길이고 하니까... 버티내자, 참자 하고선 (참여자 8)
	남겨진 북의 가족을 데려오기도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해서 데려오다가 노상에서 잡혀서 다시 복송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땐 거기다가 두고 그냥 있게 한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죄책감. 생각 같아서는 엄마, 가족들 다 데려오고픈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참여자 10)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이별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 예측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50년이 되고 그러다가 진짜 영원히도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끝말 호림> (참여자 6)
	분단상황에서 무력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아는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 심정은 참 정말...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집에 불이 나서 불에 탈 때 전화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죽는 것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는..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여자 4)

표 2. 범주화 목록 및 근거 사례

(계속 1)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중심현상>		
에도되지 못하는 상실	명료한 상실과는 구분됨 (막막함과 상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은건 분명히 땅 속에 묻혔으니가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거는 찾지 못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는 이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손녀딸들이요, 한 순간도, 안 떠나요. 마음 속에서 나아 안지지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어요. 자나깨나 그 생각이 없어 안져요. 그런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거니까 (참여자 1) • 돌아가신 분은 끝났다는, 이제는... 이미 전에 못 해주고, 이제는 더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림잡아요. 서로 그림고. 그 마음은 같잖아요. 거기서도 형제들이 (저한테 그런 감정일 거잖아요). (참여자 9)
	상실감을 경험하면서도 상실 상황을 부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가족이 곁에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도 아래 보면 없는 거. 근데 상실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잃어졌다, 그냥 누군가가 떠나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상실이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아직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 6)
명료화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 경험	북한 가족에 대한 양가적, 복합된 감정들이 교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로커 통한 소식) 기다려지기도 하면서도 여차피 오면 또 200만원씩 나가요. 돈이. 사실 (전화로) 찾아오면 돈을 자꾸 줘야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마음은 그래도 계속 전화가 언제 올지 기다려지고. 돈이라도 보내줬다는 위안되는 마음도 들고. 모든 오감이 교차를 해서 어떤 감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감정들이 섞여가지고 진짜 애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감정을 명료화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싶은데 볼 수 없는 심정,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심정. 살아는 있는데 만날려면 만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예 돌아간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그니까 저는 진짜 이걸 정말 뭐라고 표현되겠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참여자 6) • 막연한 그리움,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막연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가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사무쳤다고 해야되나. 보고싶다만으로 부족한...이 감정이 딱 보고싶다는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글에 그 단어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보고싶다를 좀 먼저보고싶다로...(참여자 8)
'그때와 '거기'에 몰두되는 생각	과거에 얼어붙어있는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 그 머물러간 그 시간에 있는거예요. 5년전, 이제 한 해가 더 지나가면 6년 전. 한 해가 더 지나가면 7년 전. 딱 요렇게 머물러 있는 그때 밖에 추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나의 어릴 적... (참여자 6)
	현재의 일상과 대비되며 수시로 침투하는 가족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로 안 무뎠어요. 네. 날이갈수록 난 더해요. 날이갈수록. 여기서 우리는 북한생활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더해요. 뭘 하나 먹어도, 야 우리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잘 먹을까 하고. (참여자 1)
자기비난적, 직관적, 수동적으로 반응함	죄책감과 무능감으로 스스로를 책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무능력한거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게... 저만 살겠다고, 저만 여기서 잘 살겠다고, 그랬던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가족 덕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너무 한심하고... (참여자 2)
	불확실함을 꿈과 직감에 의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 안오면 왜 연락 안올까. 자다가 꿈이라도 이상한걸 꾸면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 오늘 이런 꿈 봤는데 왜그러지, 북한에 (아빠랑 언니네한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요 (참여자 5)
	억눌린 감정이 신체화 증상으로 표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자꾸 맘 한구석은 내려 못놓고 있으니(못 내려놓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항상 신경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항상 명치에 걸려가지고 내려 안가는 것 같아요(안 내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화가 안되고 하나씩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엄청 아파요. 어디 맞은 것처럼... (참여자 11)
불분명해지는 가족 내 경계	양 가족 사이에서 혼란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또 낳으면) 그리움이 좀 덜어지겠거니 해서 (남한에서 인공수정으로) 낳았는데...낳고 보니 그게 또 아니예요. 오히려 더 보고싶은거예요. 아를 이렇게 하루 스톱네시간 붙잡고 있으니(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 개네도 진짜 내 자식돼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아야되는데... 그렇게 버리고 왔으니(가) 더 가슴 아픈거예요. 더 보고싶고...(참여자 7)
	남한 가족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순간마다,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에 있는) 첫째 딸 소리를 하고 계속 이러니까 어느 순간 (남한에서 같이 사는) 둘째 딸이 엄마는 언니만 너무 생각한다고.. 자기는 너무 생각 안한다고 이런 의미로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부모로서 한게 뭐가 있냐고. 그래도 저는 둘째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자기는 그래도 뭐 할거 다 하고(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니(첫째 딸)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참여자 11)

표 2. 범주화 목록 및 근거 사례

(계속 2)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중계적 조건>		
북한가족과의 교류 여건	북한가족과의 소통 가능, 현실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무사히 있다고 하니까 처음엔 막... 울컥, 울컥, 하지요. 그 답에 돈 좀 보내주면 든든하고. 엄마가 내 덕분에 고생 좀 덜했으면 좋겠고... 또 힘들면 또 오세요, 하고 보냈지. 엄마한테 보탬이 됐다는 그 자부심이 딱 생기고, 아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받은... 여태껏 엄마한테 받은 걸 보답하는 심정이나까 기분이 엄청 좋지요. (참여자 3)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남북 경제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정상회담 기다리고 있지요... 이제는 통일이 될 것 같은 그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에 있을때 들었고 여기와서는 처음인데, 북한에 있을때에도 같은 심정이고 지금도 같은 심정이고. 통일을 위한 한 걸음을 또 앞으로 내딛는다 생각해요. (참여자 10)
개인적 특성	변화와 연대를 할 수 있는 유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이런 아픔 없이) 완벽한 척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걱정없는, 우여곡절 없는 사람 없고, 사연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걸 안내려놨었던거든요, 예전에는. 제 걱정은 제 마음 속 안에 있지 밖으로 꺼내놓고 하는걸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는 주위에 믿고 싶은 한두 명 정도 언니들, 양부모님이든, 그런 분들한테 내 마음속 상담을 받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편하더라고요. 그들만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저를 아니까 저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할거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상황을 인내하고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조절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날 가족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는 제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되니까.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기 참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야지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해야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중략/ 강철이 자꾸 맞으면 더 단단해지듯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강한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참여자 4)
관계적 자원	남편에서 함께 하는 가족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좋은걸 참고 견디는 그제 다 스트레스인데.. 저희 남편은 계속 저를 웃게 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장난을 쳐가지고 웃게 해요 (참여자 9)
	사회적지지, 사교적/종교적 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활동도 많이 해요. 대학생 활동 이런거. 그러다가 저희 모임 들어오신 분들 중에 부모동반 하셨던 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혼자 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야빠, 양엄마 되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하게 양오빠도 생기고 양언니도 생기고(중략) 주위에 그렇게 좋은 언니가 많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여자 2)
<작용/상호작용 전략>		
감정 자각과 조절	감정에 압도되기 전에 주의 전환을 시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생각 안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딴 데로 시선을 돌리죠. 제가 좋아하는 일은 진짜 집중이 잘되요. 역사책 읽는 것 좋아해서 그런거 보면 진짜 폭 빠져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들어요. (가족이) 생각나면 눈물이 난단 말예요.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그걸 잊으려고 하죠.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울거나 슬퍼해봤자), 아빠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생각나지 않게 하는게 최선책인것 같아요. (참여자 8)
	눌러놓은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하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들을 터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힘들면 밖으로 나가요. 정 힘들때는 예 제우고 혼자 서정적인 노래들, 슬픈 노래 들어요. 슬픈 노래들으면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내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같으니까. 홀로 아리랑 같은 것 들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는거지요. (참여자 6)
상황 수용을 통한 선택과 집중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적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에는 내가 왜 여기와서리 이렇게 고생하는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이런 고생 안하는데 이런 생각했지. 지금은 안해, 지금은 마음 다 정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 뿐이지... (참여자3)
	'지금,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목표에 초점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진거 가지고 계속 슬퍼하고 그러면 내가 속병앓이를 하겠는데. 거기 있는 거 아니까 돈을 좀 보내주고 빨리 벌어서 데려와야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니 그렇게 아픈거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미 헤어진거... 열심히 해서 데려와야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더 벌자.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좀 불안하죠. 언제든지 (북에서) 전화를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 한번 오기가 힘든데 항상 대비를 하는거죠. (참여자 5)

표 2. 범주화 목록 및 근거 사례

(계속 3)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부채 속 존재 강화	물리적인 부채를 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때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지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한테...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냥 잘 있었나, 말동무를 찾는거지요. 일단은 빨리 머릿 속에서 그런 외로움을 털어야 되니까. 모든 뿌리는 다 외로움이잖아요. 가족 생각 나고 이런 그리움도 다 외로우니까 생기는 거고. (참여자 4)
	심리적 재결합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숫자를 쓸 일이 많잖아요. 집 현관 비밀번호나 내 휴대폰 번호를 다 제 생일이란 관계 없는 (북한의) 가족들 꺼예요. 남동생 여동생 아빠... (남한의)문 비밀번호, 심지어 메일 비밀번호 호도.. 다 그러니까(가족들과 관련되니까), 어떻게보면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여자 2) • 아빠 생일을 핸드폰에 항상 저장해놓고 있는 거 같아요. 아빠 생일되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매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올해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구나, 이런걸 계속 떠올리게 되잖아요. 웬지 그렇게 하면 안전감, 그 생일 만으로도 아빠를 보는 느낌, 아빠를 느끼는.. 비밀번호 입력할때마다 아빠 생일 보면서 그냥 안전감, 든든함, 웬지 옆에 같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걸 가지고 연결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결 과>		
'그때-거기-그들'에게 치우친 두 세계의 불균형과 비공존	삶의 축이 상실 대상의 세계에 치우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인처럼 살지요. 부모도 배반하고, 자식도 버리고. 마지막에 내 고향까지 다 등지고 온거니까 사람이 사는게 말이 아네요. 제가 막내를 '낳고보니' 애들 자리가 더 견고하게 남아있는것 같아요. 낳아보니까 더 한거예요. 털어질 수도 없고. 막내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리워지고 무조건 애네 데려와야되겠고 가네에 대한 사랑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것으로도) 지워버릴 수 없어요. (참여자 7) •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금방 데려올게', 하고 고때 한번 (전화로)목소리 들어보고 그 답엔 현재까지 만나지도 못하니까(통화가 안되니까)... 그냥 거기서 에타게 여기를 기다리고 있겠는데...저를 더 많이 원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 버리고 어찌면 저렇게 갔을까 나를 원망 할 것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눈물흘림> (참여자 11)
	시간이 지나도 부채감에 압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로 안 무더져요. 날이갈수록 나는 더 해요. 가네(손녀딸들) 없이 우리를 좋다고 이렇게 먹으면 뭐하니. 가네들은 굶는지 병이나 걸리지 않았는지...(참여자 1)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한 두 세계의 균형과 공존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실의 균형을 찾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런스를 유지한다는게... 가족때문에 저의 꿈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가족한테 그러면 저도 가족도 다 힘들어져요. 내가 가족 때문에 내 꿈을 접었어, 이러면 가족은 얼마나 저한테 미안하겠어요. 저는 그런 (중심)유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뭔가 원망을 사지 않게. (참여자 2)
	모호함 속 희망으로 상실에서 '공존'이 가능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도 동생 만나면 그래요. 언니야, 엄마 살아 있었지? 엄마 살아있을 거다, 엄마는 반드시 살아있을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통일이 될때까지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 않나. 엄마는 살아있을거야, 계속 그러지요. 살아있을거다.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항상 그 마음이 믿음으로. (참여자 10)
'상존' 자각을 통한 성장적 적응과 확장 경험	'상존해 있는' 가족의 존재로 현재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도 제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살아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에는 오늘 죽어도 아무 생각 없겠네 그런 생각. 근데 딱 나오니까 난 여기서 죽으면 안된다.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된다. 가족한테 내 소식을 알려야 한다 이런 생각. 그리고 내 애는 내가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딱 지금에 와서도 아직은 내가 (북한의 가족에 대한) 목표가 있으니까 힘들더라고 가 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참여자 6) • (북한에 계신)아빠는 제가 공부해서, 아빠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 되길 원하셨거든요. 아빠는 어릴때부터 굉장히 저 공부하는데 엄격해가지고. 아마 아빠같은... 북한에서는, 인텔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가길 원했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도 대학원가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요. (참여자 8)
	상실 상황으로 인한 심층적 의미 생성과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죄책감에 헤매이다가도, 아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겼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찾아가고 있고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 연령대에 가족이라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고 잃어지고 가는 것이... (앞으로) 저도 가족이 생길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저한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아닐까. (북한에 있을 때) 부모라면 자식들 앞에서 멋있고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어야 한다 생각해서 (북한에서 이혼하신) 부모님을 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상황을 통해) 가정의 의미,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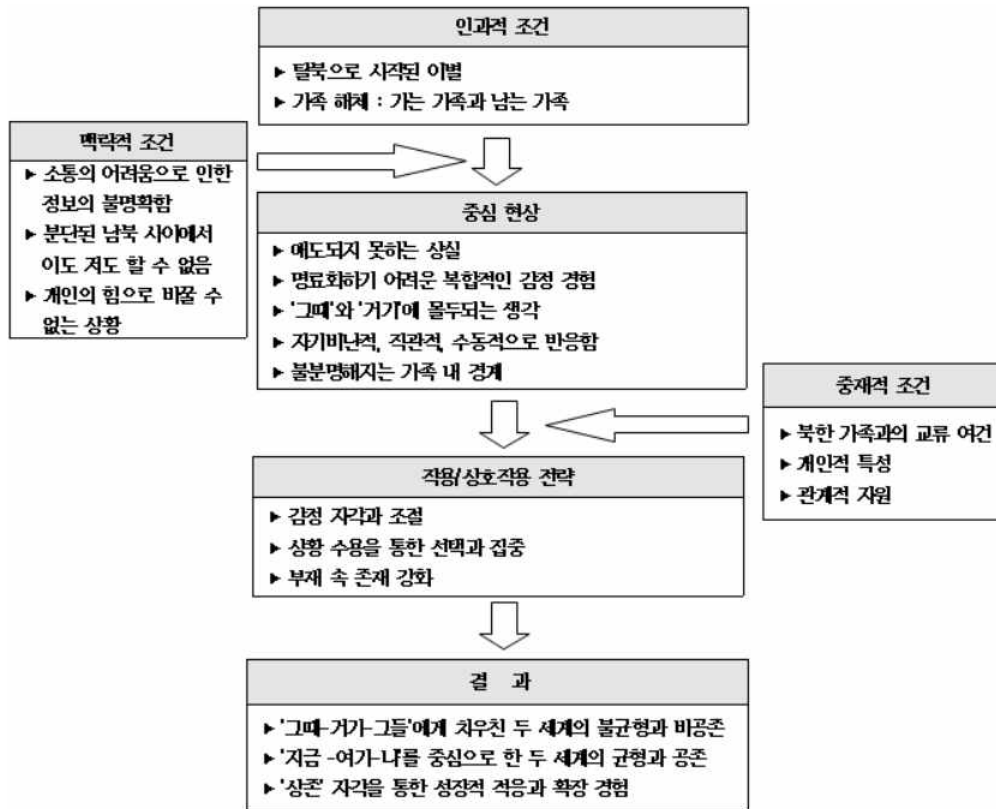


그림 1. '모호한 상실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되더라도, 북한의 가족 중 누군가가 여러 날을 거쳐 국경 지역까지 몰래 나와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위부의 단속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신호 탐지기에 발각될 우려 때문에 서로의 이름조차 명확하게 부르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 받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참여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내고 오랜 기다림 끝에 통화할 수 있었으나 단 몇 분간 간신히 서로의 목소리를 듣거나 수개월 전에 보낸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정도만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그조차도 브로커 비용 및 북한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생활비가 구비되었을 때에만 가능하였다.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거나(참여자 8, 10), 브로커가 접선하기 힘든 지역에 가족들이 있는 경우 소통 할 기회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참여자 1, 2, 7, 11). 가족의 생사와 안위를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되었다. 북한의 가족이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언제 볼 수 있을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분단된 남북 사이에서 이도 저도 할 수 없음

탈북 과정은 일방통행과 같아서 남한행에 대한 선택을 반복하거나 북한의 가족에게 되돌아가갈 수 없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되돌아가고픈 생각을 수없이 하였어도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체감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가족의 탈북을 돕는 것은 참여자 자신이 홀로 탈북을 감행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가족 중 일부라도 데려오기 위해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브로커가 찾은 대상이 자신의 가족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참여자 1, 7),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탈북을 권유하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참여자 4, 5, 11). 또한 가족이 탈북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브로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준비 과정에만 몰두하기도 했다(참여자 3). 참여자 6, 9는 형제들 전부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올 수 없음을 수용하고 생활비만 고정적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참여자들은 언제 이러한 상황이 끝날지 가늠할 수 없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다. 참여자 4는 자신의 탈북은 의지로 진행해왔지만 북한에 남은 아내와 어린 둘째 자녀는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을 강요할 수 없어 현재의 상황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가족에게 되돌아 갈 수도, 생존해있는 북한의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심현상

현상(phenomenon)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하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여기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의해 모호한 상실 상황이 야기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참여자들의 심리적 경험을 중심현상으로 주목하였다. 중심현상은 <애도되지 못하는 상실>, <명료화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 경험>, <‘그때와 ‘거기’에 몰두되는 생각>, <자기 비난적, 직관적, 수동적으로 반응함>, <불분명해지는 가족 내 경계>로 나타났다.

애도되지 못하는 상실

모호한 상실은 상황적인 막막함과 상실 상황임에도 대상과의 상호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는 죽음과 같은 명료한 상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수한 상실 경험이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상실 아닌 상실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가족들이 살아있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므로 상실된 것은 아니라며 객관적인 상실 상황을 부정하였지만, 대상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부재 상황을 비상실로 지각하는 참여자들은 그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실감을 비롯한 감정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실 대상에 대한 슬픔은 애도될 수 없었고 상실 경험 또한 타당화되기 어려웠다.

명료화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 경험

참여자들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상실과 부채에 대한 슬픔을 지니면서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경험했고, 만날 수 없음에 대한 그림고 딱딱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언젠간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기도 했다.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감정들을 명료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명명되지 못한 감정은 억눌린 채 잔존할 수 밖에 없었고 참여자들은 이로 인한 정서적인 소진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때’와 ‘거기’에 몰두되는 생각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상실의 대상은 현재 생존해있으므로(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생존해있다고 믿게 되므로), 동시간대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참여자들은 남한에서의 일상과 대비되는 북한 가족들의 삶을 수시로 떠올렸고 마지막으로 본 모습만을 기억 속에 간직하며 과거에 몰두되는 특성을 보였다. 일상적인 자극에도 북한의 가족이 상기되었고 참여자들은 그들의 부채를 수시로 절감하였다. 이것은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동적인 ‘침투’에 가까울만큼 빈번하게 경험되었고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자기비난적, 직관적, 수동적으로 반응함

참여자들은 현재의 모호한 상실 상황을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무능감을 경험했으며 스스로를 책망하였다. 참여자 11은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마를 줄 모르는 샘물로 비유하며 답답해하였다. 북한 가족에 대한 안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었으므로 대부분 꿈과 직감,

점(占)을 치는 행위와 같이 직관적이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존하고 있었다.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 온 억눌린 감정들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불분명해지는 가족 내 경계

남한 내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참여자들은 남한 가족과 북한 가족 사이에서 가족 경계를 불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탈북 후 남한의 가족과 현실에 적응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지만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생활비와 탈북비용에 대한 염려는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 이는 가족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boundary ambiguity)으로 이어졌고 북한의 가족을 데려오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 때문에 남한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참여자 5, 6, 9, 11).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북한 가족과의 교류 여건>, <개인적 특성>, <관계적 자원>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 있는 참여자들의 대처 전략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 가족과의 교류 여건

북한 가족과 미약하게나마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감내해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북한 가족과 통화한 것을 ‘만났다’고 구술했다(참여자 3, 6, 9, 11). 이조차도 북한 가족과 교

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일 년에 몇 번 가량만 브로커를 통해 간신히 연결되는 통화였지만 참여자들에게 이는 고대되는 연중행사와 같았다. 전화가 연결되면 가족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고 돈을 보낼 수 있었다.

북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참여자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족과 심리적 유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Solheim, Zaid, & Ballard, 2016). 참여자 3, 4는 ‘작년에도 이맘때쯤 전화가 오니까 곧 올 때가 되었다’며 보내줄 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참여자 5, 6, 11은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없는걸 보니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된다’며 날마다 뉴스를 통해 남북 정세를 살폈다. 남북 정상회담, 통일의 이슈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그리고 북한 가족을 위한 현실적인 원조가 가능한 상황일수록 교류 여건은 안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교류 여건은 남한에서 참여자들의 현실 기반 및 적용 과정과도 연관이 있었다. 교류여건이 불안정하거나 단절된 경우 현실에서의 기반 또한 불안정하였고, 현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교류를 위한 대비 역시 어려워지는 것으로 상호 악순환되었다(참여자 7, 8, 10).

개인적 특성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고 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 유연함(참여자 2, 6), 상황을 인내하고 의지를 강화해갈 수 있는 조절 능력(참여자 4, 8)은 모호함과 상실감을 감내해갈 수 있게 하는 개인적인 특성이었다. 이러한 개인 내적 자원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

어 강화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상실 상황에 대해 감정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의지적으로 대처하며 반응을 조절하고 적응해갈 수 있었다. 반면 모호함과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감정 해소의 어려움, 상황 비수용 및 회피와 같은 대처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모호한 상실 상황에 압도되거나 경직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참여자 7, 11).

관계적 자원

연구참여자들에게 관계적인 자원은 현실을 견디어가게 하는 또 다른 힘이었다. 함께 탈북해 온 가족들이 남한에 있는 경우 곁에 있는 가족의 존재로써 북한 가족의 물리적 부재를 조금이나마 메워갈 수 있었다(참여자 9). 가족 외에도 남한에서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가족의 부재로 인한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 특히,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 활동은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호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참여자 10, 11).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오히려 남한 가족 내에서의 관계 갈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참여자 3, 7, 10). 이 경우는 남한의 가족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심리적인 지지자원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북한 가족에 대한 물리적인 모호한 상실을 경험할 뿐 아니라, 현재 남한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모호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 가족과 남한 가족 내에서 ‘이중의 모호한 상실(dual ambiguous loss)’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의 가족과 갈등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 믿고 의지할

관계적 자원이 부족할수록, 북한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재감은 심화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은 직면한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의미하며,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상을 조절하거나 대처해가는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감정 자각과 조절>, <상황 수용을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부재 속 존재 강화>가 행동전략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심리적인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상실 상황에 적응해가기 위한 의지적인 대처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감정 자각과 조절

모든 참여자들은 가족의 부재를 견디는 동시에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북한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촉발될 때마다 치솟는 감정을 조절해야 했으며 현재의 일상 스트레스에도 적절히 대처해 가야했다. 자신의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 참여자들은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압도되기 전에 주의를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참여자 4, 8), 눌러놓은 감정들을 발산함으로써 해소해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다(참여자 6, 10). 상실 상황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시행착오를 통한 조절의 과정들이 이뤄지고 있었다.

상황 수용을 통한 선택과 집중

참여자들은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중국 및 타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남한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현재의 일상 등 다양한 맥락들을 경험해왔다. 여러 상황들에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맥락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의지적으로 수용해가는 과정이 이뤄져야 했다. 모호한 상실 상황은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이를 무력감과 자책감으로 경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한 참여자들은 감정에 압도되기보다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였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행동전략을 보였다.

부재 속 존재 강화

참여자들은 현실 세계의 관계망을 넓힘으로써 물리적인 부재를 대체해나갔고 상실 대상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심리적 세계에서 재결합할 수 있는 행동전략을 보였다. 이는 대상의 상실과 부재에 대한 일종의 애도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전략을 통해 참여자들은 물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세계를 모두 확장해 나가고 있었으며 부재가 아닌 '존재'에 초점을 둘 수 있었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모호함을 야기하는 상실 대상과 단절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공존'하는 방식으로 상실 상황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결 과

결과(consequence)는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탈북을

감행한 이상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 이었고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받아들이며 남한에서의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때-거기-그들에게 치우친 두 세계의 불균형과 비공존’,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한 두 세계의 균형과 공존>, 그리고 <‘상존’ 자각을 통한 성장적 적응과 확장 경험>으로 범주화하였다. 결과 범주는 면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의 적응 양상을 구분한 것이다.

‘그때-거기-그들에게 치우친 두 세계의 불균형과 비공존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지금 내 감정이 이토록 힘든데 북의 가족들 심정은 얼마나 더 힘들까’를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부재하는 대상에게 수시로 향하곤 했다.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압도되는 경우 삶의 중심축은 ‘그때-거기-그들에게 치우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무력감과 조급함, 부재감이 심화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한 두 세계의 균형과 공존

참여자들 중 일부는 모호한 상실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여기-나’의 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이 적응을 위해 필요함을 깨달아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흔들림 없이 북한 가족과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었다. 모호한 상실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에게 ‘여기와 ‘거기로’ 경험되는 두 세계는 지리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의미하는 것 외에도, ‘물리적인 부재 상황과 ‘심리적인 존재 상황’처럼 상반된 두 세계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두 세계의 통합은 부재 상황 속에서 존재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호한 상실’은 종결이 불명확하나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재회를 희망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모호함 속의 희망은 현재를 살아갈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미래를 긍정적으로 조망해갈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었다. 만날 수 없는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동시간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즉 부재와 존재가 공존하는 상황은 심리적인 괴로움을 야기하는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한 두 세계와 공존해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여기’ 또는 ‘거기’처럼 이분화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도, 이를 심리적 세계에서 통합해가는 참여자들은 더 이상 양분된 관계가 아니라, ‘여기’ 그리고 ‘거기’와 같은 공존 관계를 구성해갈 수 있었다.

‘상존’ 자각을 통한 성장적 적응과 확장 경험

물리적으로 이분된 두 세계를 통합해 가는 것이 가능해진 참여자들은 심리적 세계에서 ‘가족이 항상 존재할 수 있음(상존)’을 깨달았다. 공간의 통합에서 시간의 통합이 이뤄지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들의 생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변화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그들의 입장이 어떠할까’라는 일방향적 공감에서, ‘저기 가족들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와 같은 입체적인 조망으로의 전환이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를 생각함으로써 공감의 주체이자 객체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저기 있는 가족의 존재'는 '저기에서 여기'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에게'로 삶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기표 역할을 했다. 즉, 상실 대상은 참여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고히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이로써 심리적 세계에서 상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과정에 있는 참여자들은 상실 상황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서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해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삶에서 성장적인 적응을 경험해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상실 경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의미이므로 상실 이전보다 삶을 확장시키는 자원이 되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찰과 같은 질적 성숙이 동반된 변화들로 나타나고 있었다.

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공존과 상존 자각을 통해 모호한 상실

을 감내하며 살아감]으로 제시했다. 과정분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물리적 상실 발생', '모호한 상실 상황 경험', '심주 구축', 그리고 '통합과 확장'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호한 상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의지적인 대처를 통해 물리적으로 상실된 대상과 '함께 있을 수 있음(공존)'을 인지하게 되고 그 대상이 사실 '항상 존재하고 있음(상존)'을 자각하는 과정을 경험해 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존재와 부재가 공존하는 두 세계를 통합해갈 수 있었고 경험 속에서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로 삶을 확장해나갔다.

물리적 상실 발생 단계

이 단계는 탈북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물리적인 상실 단계이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탈북을 결심하였고 남게 된 가족에게 어떤 기약도 할 수 없었다. 떠난다는 작별조차 하지 못한 채 강을 건너기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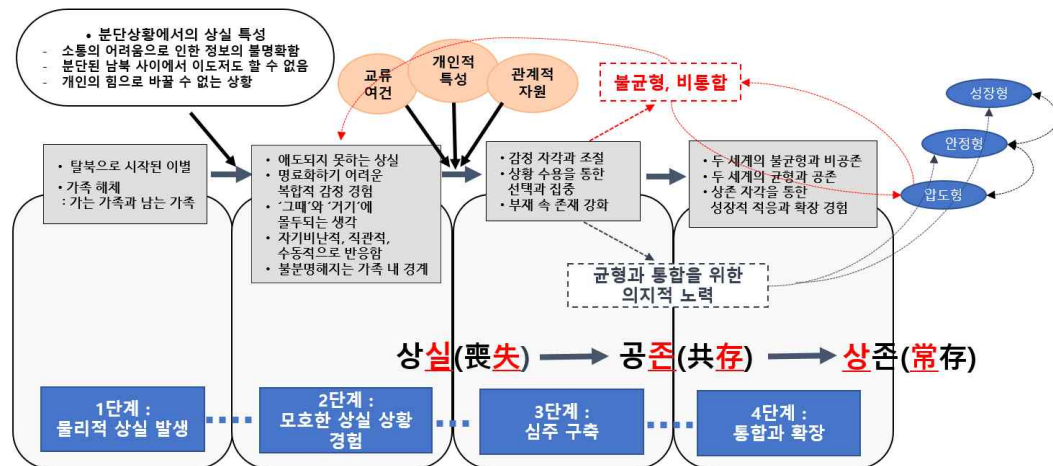


그림 2. '공존과 상존 자각을 통해 모호한 상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과정' 분석

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가족 단위가 해체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맥락은 재북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함을 야기하였고 참여자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가족들에게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막막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재회의 날만을 그저 기다리며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가게 되었다.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의 심리적 경험 단계

살아있지만 볼 수 없고, 볼 수 없음에도 살아있는 상황은 참여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맥락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명료한 상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복합적인 감정 경험들을 명료화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면서도 상실 상황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당화되기 힘든 모호한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의 심리적 경험은 충분히 애도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잔존하는 특성을 보였다. 모호한 상실 상황은 종결되지 못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삶과 함께 지속되었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일상과 대비되는 북한 가족들을 수시로 떠올렸고 과거의 기억에 몰두되곤 하였다. 북한에서 생활할 때보다 자유로움을 느끼면서도 자신과 같은 시간대에 북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를 알 수 없어 불안해했고 죄책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가족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

적인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꿈, 직감 등의 방법으로 가족의 생사와 건강, 재회 가능성을 접했다. 남한 내에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북한 가족과 남한 가족 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해짐을 경험하였다. 이 때 북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남한의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한쪽 가족에게만 몰두되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이는 또 다른 유형의 관계 상실로 이어졌다.

심주 구축 단계

참여자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적응해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이 단계는 모호한 상실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기 위해 심주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심주란 본래 불탑의 한 가운데를 뚫고 세운 기둥을 일컫는 용어로, 사람에게서는 마음의 중심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모호한 상실의 상황을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지닌 채 현실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구축해야 했다. 이는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경험과 현실'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식하여 이에 압도되기 전에 해소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상실과 부재가 발생한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책감과 무력감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소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대처 전략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재현하거나, 북한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재결합을 통한 존재감을 강화해가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록 참여자 자신이 속한 물리적 세계와 가족이 속한 심리적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고 통합과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때 중재적 조건인 북한 가족과의 '교류여간'이 안정될수록, 그리고 '모호함과 상실감을 감내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 및 관계적 자원'이 긍정적일수록, 심주를 구축해가는 과정 또한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통합과 확장 단계

이 단계는 모호한 상실 상황을 감내해가며 현실에 적응해가는 단계이다. 모호한 상실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이며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맥락의 변화와 요인들간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균형-불균형 상태를 오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적응의 과정을 변증법적인 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의 세계와, '반'의 세계 사이에서 유연하게 균형 지점을 찾아가며 '지금-여기-나'를 중심축으로 하여 두 세계를 통합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그때-거기-가족들의 처지에 몰두되었던 일방향적 공감'에서 '지금-여기-나'로 조망을 이동시키며 현재 삶의 중심과 방향을 확고히 하게 된다. 상실 대상을 배제하거나 단절하는 방식으로 명료함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재하는 가족의 존재를 통해 자기 공감과 자기 확신을 구축해간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공존이 가능해지는 '합'의 세계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변증법적인 적응의 과정에

서 일차적인 지향점이 된다. 이렇게 모호한 상실 속 양극단이 역설적으로 통합되어감으로써 참여자들은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대상과 '공존'하게 되고, 나아가 대상이 '상존'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공간과 시간의 통합이 이뤄짐으로써 심리적 세계에서 재결합이 가능해지고 대상의 영속성을 재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뤄진 '합'이 또 다른 '정'이 되고 새로운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한 단계 나아간 '합'이 도출되는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상실 상황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심층적인 의미이며 이로써 상실의 경험은 성장의 맥락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는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성장적 적응이자 경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유형 분석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조건에서 나타난 범주명을 중심으로, 1) '현실기반 및 균형의 안정성 수준', 2) '의미 생성과 확장의 깊이 수준'이라는 두 차원으로 참여자들을 유형화하였다(그림 3).

본 연구에서는 '정·반·합'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적응 유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한 현실기반 및 두 세계 간 균형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이는 '정'과 '반'을 오가며 이뤄낸 일차적인 '합'의 세계와 연관된다. 두 번째 차원은 '합'의 세계가 또 다른 '정'이 되어 보다 심층적인 '합'의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과 연관된다. 생성된 의미와 확장된 경험의 깊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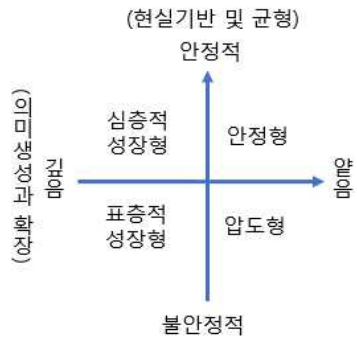


그림 3.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상황 적응 유형

결정하는 차원이다. 유형분석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이뤄지는 두 세계의 역설적인 통합 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향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두 차원에 의해 네 가지 유형과 예외적인 두 사례를 구분할 수 있었다(예외적 사례: 노년층 참여자 1(연령 및 세대에 따른 발달과업 요인), 남성 참여자 4(성 역할에 따른 변화 요인)).

압도형

이 유형은 양분된 두 세계인 '정-반' 사이를 오고 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분석 시점에서 현재 생활에 불만족스러움이 높았고 '그때-거기-그들'에게 삶의 축이 치우쳐진 모습을 보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남한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관계 갈등을 경험하거나(참여자 3), 배우자의 경제적 채무 및 무능력, 출산과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참여자 7), 북한 가족에 대한 부채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즉, '정'의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반'에 해당하는 북쪽 가족 및 과거 북한에서의 생활에 좀 더 초점이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적응을 돕는 대처 전략도 비

일관적이거나 미흡하였다. 이는 중심현상인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의 심리적 경험'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한 생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도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나,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안정된 현실기반 및 균형을 도모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었으며, 더 깊은 차원으로의 의미 생성 및 확장 또한 어려운 단계에 있었다(참여자 3, 7).

수용안정형

이 유형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한 균형점에 이르러서 '정-반-합'으로 통합된 구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현재 남한에서의 현실기반이 안정적인 조건에 있었고 개인적 자원 및 관계적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따라서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들이 가중되지 않고 조절 가능한 범위에 있었기에 균형감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정을 넘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정-반'의 균형-불균형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차원으로 의미를 생성해가거나 삶을 확장시키는 과정까지는 지향하고 있지 않았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주변 맥락적 요인들과 행동전략의 변화에 따라 '압도형-성장형' 사이를 오고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참여자 5, 9, 11).

표층적 성장형

이 유형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이 확장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심층적 성장형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의지적인 대처전략으로 조절해가기에는 외부 여건 및 현실적인 기반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었

고 북한 가족과의 교류여건은 불안정하거나 단절된 상태였다. 이들은 '정·반'의 모순을 통합해갈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과 대처전략이 있어도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이 컸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현실의 상황도 쉽게 영향을 받곤 했다. 물리적 여건의 변화 폭이 크면 두 세계를 통합하고 깊은 차원의 의미를 생성해가는 과정 또한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현실에서는 표층적 성장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세분화하였다(참여자 8, 10). 이 유형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의 의지적인 대처와 노력이 중요할 뿐 아니라, 현실기반 및 물리적인 여건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심층적 성장형

이 유형은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한 현실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남한과 북한의 가족 사이에서 균형과 통합을 통해 공존하는 삶을 지속해가고 있었다. 현재의 여건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표층적 성장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남한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북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해갈 수 있는 대처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으로부터 배워 나갈 수 있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자원 및 이를 지지해주는 관계적 자원과도 연관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현실에서 안정적인 중심축을 구축해갔고 이를 바탕으로 두 세계를 통합해감으로써 북한의 가족과도 심리적인 연대를 지속해가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져 선순환되었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이러한 모호한 상실 상황을 통해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하

고 그 이전보다 자신의 경험과 삶을 확장시켜나갔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현실안정 및 균형을 넘어서서 한 차원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정·반·합'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용안정형과 다른 심층적 성장형만의 특성이었다(참여자 2, 6).

논 의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하여 가족과 이별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상황에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중심현상과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맥락화함으로써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리학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러다임 모형에서 상정한 중심현상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경험'이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만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또한 살아있음에도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해 명료한 상실 상황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적절히 명명하고 타당화할 수 있는 개념이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중심현상과 이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각 요인들간 관계를 통하여 모호한 상실 상황을 맥락화하고자 했고 이로 인한 심리적 경험을 인지적(그때와 '거기'에 몰두되는 생각), 정서적(명료화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 경험), 행동적(자기 비난적, 직관적, 수동적으로 반응함), 그리고 관계적(불분명해지는 가족 내 경계)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모호한 상실 '상황'과 그로 인한 '반

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축코딩의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을 통하여 모호한 상실 상황이 야기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중심현상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모호한 상실의 조망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모호한 상실 상황은 양가적이고 복잡적으로 경험되는 감정들을 명료화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므로 이러한 경험들을 타당화할 수 있는 명명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명명과 이해가 보다 깊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추후 모호한 상실감을 주제로 한 후속적인 연구들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러다임 모형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모호한 상실 상황을 감내해갈 수 있는 대처 전략들을 범주화하였다. 이는 향후 심리학적 개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이 모호한 상실 상황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해온 방식들은 ‘감정 자각과 조절’, ‘상황 수용을 통한 선택과 집중’, ‘부채 속 존재 강화’와 같은 전략이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미 발견, 숙달감 조율, 정체감 재구성, 양가감정 타당화, 대상과의 애착관계 재조정, 그리고 희망 발견과 같은 여섯 가지 방법을 언급한 바 있지만(Boss, 2006),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 근거들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통해 경험적으로 모호한 상실의 대처기제를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감정 자각 및 조절’ 범주는 선행문헌에서 제안한 양가감정 타당화와 유사하며, ‘상황 수용을 통한 선택과 집중’은 숙달감 조율과, 그리

고 ‘부채 속 존재 강화’는 애착관계 재조정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나타나기도, 또는 결과 범주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범주 또한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각 과정들이 순환됨으로써 적응적인 방향으로 회복 또는 성장해가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감정 인식 및 표현이 매우 제한적인 북한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감정 자각과 조절’ 전략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개입 전략일 것이다. 특히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일상의 자극들로도 가족에 대한 감정이 수시로 촉발되는 경험을 하므로 쉽게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곤 했다. 따라서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나름의 대처전략이 필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제안된 기존의 심리학적 개입들 중 셀프파워 프로그램,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들(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최현옥, 손정락, 2011)은 쉽게 각성되거나 우울해질 수 있는 상실의 상황에서 감정 조절의 대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호한 상실 상황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정 조절 전략만으로는 상실 상황의 모호함과 역설성을 다루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감정 자각 및 조절의 방식과 더불어 다른 대처 전략들과 통합된 개입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다른 두 범주를 통해 고려해볼 수 있다.

‘상황 수용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능감과 숙달감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남, 북의 가족 경계에서 유연하게 균형감을 조절해가는 것과 관련이 있

다. 비서구권 국가의 실종자 가족을 중심으로 모호한 상실을 다룬 연구(Robins, 2010)에서는 문화적 특성에 따른 대처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통제력과 문제 해결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모호한 상실 상황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따라서 이 경우 숙달감을 조절해가는 것이 중요한 개입 중 하나가 된다. 반면 비서구권에서는 개인의 숙달감에 대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거나 서구 문화에 비해 가족의 범위가 혈연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경직된 특성이 있으므로 가족 내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Robins, 2010).

북한이탈주민 역시 혈육으로 연결되는 가족의 경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부재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타인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obins(2010)의 해석과는 다르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숙달감의 조율도 상당히 중요하였다. 이는 생사를 오고가는 탈북의 과정을 의지로 헤쳐 온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들은 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으며 탈북의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은 분명 적응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연하게 수용하고 변화해가는 것이 필요한 모호한 상실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력감, 자책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 현실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러한 자책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모호한 상실 상황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수용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했으며,

이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 적응을 위해 필요하였다. 이것은 숙달감을 조율해가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한 두 세계의 통합을 중요한 적응의 차원으로 고려한 이유도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또 다른 중요한 대처 전략으로 본 연구는 ‘부재 속 존재 강화’를 범주화하였다. 이는 상실 대상의 물리적 부재를 다른 관계에서 충족하고 동시에 대상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지속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애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모호한 상실 또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나(Betz & Thorngren, 2006), 명료한 상실처럼 사회문화적으로 합의된 애도의 방식이 부재한다. 애도에 관한 이중과정모델(Dual Process Mode, DPM; Strobe & Schut, 1999)에서는 애도를 상실 지향(loss-orientation)과 회복 지향(restoration-orientation)의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상실 지향 애도 유형은 이별 경험에 초점을 두고 상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심리적으로 고인과 유대감을 지속하는 과정을 다룬다. 고인을 상기시키는 유품을 보며 그리움,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는 작업 또한 이것에 포함된다. 회복 지향 애도 유형은 사별 이후 변화된 세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 및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변화된 세계를 적응적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Strobe & Schut, 2015).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모호한 상실 상황 역시 두 유형의 대처가 모두 필요한 상실 맥락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부재 상황 속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회복 지향 대처로, 그리고 상실 대상과의 심리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은 상실 지향 대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상황에 대한 대처 과정에는 감정을 명명하고 조절하는 전략, 남, 북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중심 구축, 그리고 부재와 상실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료한 상실 상황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추후 모호한 상실 상황에 초점을 둔 통합적인 심리적 개입 및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축코딩의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모호한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의 상호작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상황이 촉발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상황적 기제가 된다. 또한, 중재적 조건은 모호한 상실 상황에 대한 참여자들의 행동전략들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북한 가족과의 교류 상황이 긍정적일수록, 모호함과 상실감을 감내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 및 관계적 자원이 안정적일수록 모호한 상실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그리고 중재적 조건에서 드러난 범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특히 관계적 자원은 모호한 상실 문헌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타인 및 지역 사회가 지지적인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비공감적이고 경직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모호한 상실에 대한 대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Boss,

2015).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 내에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경험을 다수 보고한 바 있다(박은미, 정태연, 2018; 조영아, 2015). 이는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상실 맥락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게 한다. 모호한 상실 상황은 타당화 및 애도의 과정이 명료한 상실보다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해와 관계적 자원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구체적인 개입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가족체계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북한 가족과의 심리적 연대를 지속하는 방식을 사회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 또한 의미있는 개입이 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이라크로 파병된 군인 가족들의 모호한 상실을 다루기 위하여 가족지지그룹(FSG)을 통한 개입을 시행한 바 있다(Faber, Willerton, Clymer, MacDermid, & Weiss, 2008). 이는 이민자 가족의 모호한 상실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제안된 방식으로(Falicov, 2002), 본국에 있는 가족과의 명료한 분리를 통해 모호함을 해소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본국의 가족들과 심리적인 유대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관계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개입 전략이다. 이는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서 언급한 부재 속 존재 강화의 전략과도 연관되는데, 개인적 자원의 애도를 넘어서서 중재적 조건에서 사회적 차원의 애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국의 가족 지원, 고국방문의 기회 제공, 양 문화의 통합을 위한 문화 공간 창출, 본국의 가족

과 행했던 가족 의식을 계속해서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사회와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북한 가족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북한 가족 내에서의 의식을 지속하고 기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남한의 지역사회 내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상실 대상과의 '공존과 상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개입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맥락 및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탈북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모호한 상실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가족을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는 경직된 문화와 가족의 정상성(normality)을 고수하는 분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이 강한 사회일수록 가족 해체를 경험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진숙, 2013).

그동안 남한사회 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심리적 통일을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 왔다.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 집단교육 및 집단상담(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는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통합교육(정진경, 조정아, 2008)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호한 상실 맥락을 조망한 사회적 개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와 비교하여 해외에서는 모호한 상실 뿐 아니라 이별 이후 가족이 재결합하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모호한 존재(ambiguous presence) 상황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Faber et al, 2008). 이

러한 모호한 존재 상황은 향후 재결합한 북한이탈가정에서도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조정아, 2012),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심리사회적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과정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의 적응을 '물리적 상실 발생 - 모호한 상실 상황 경험 - 심주 구축 - 통합과 확장'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도식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정·반'을 오가는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나름의 적응 과정을 지나고 있었다.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한 두 세계의 균형과 통합이 가능해지면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가족은 심리적 세계에서 공존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상실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생성하며 자신의 삶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실의 관점이 '상실-공존-상존'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해석하였다. 이는 이분화되었던 모순된 두 세계의 통합을 의미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실된 대상의 영속성을 심리적 세계에서 재획득함으로써 보다 깊은 관계맺음과 성숙한 조망 수용이 가능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장의 방향은 '결과' 범주를 토대로 구분한 유형 분석에서도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의 적응 유형을 압도형, 수용안정형, 표층적 성장형, 그리고 심층적 성장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지금-여기-나'를 중심으로 두 세계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 의미를 생성하고 경험을 확장시켜 가

고 있는지에 대한 두 차원을 기준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는 면담 당시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므로 특정 유형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맥락적 요인과 대처전략의 양상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유형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각 유형에 속한 모든 참여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현재 모호한 상실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압도형’으로 분류된 참여자라 할지라도 변증법적인 적응의 어느 과정을 지나고 있는 한 단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각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개입 방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의 압도형에 속하는 경우, 현실 기반과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적 조건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이 모두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반’의 과도기에서 심주를 구축하고 ‘합’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수용안정형의 경우, 현실 기반과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합’으로부터 새로운 ‘정-반’을 향한 성장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단계이다. 현 단계에서 안정을 지속하는 것도 적응의 중요한 목표이나, 상실 대상과의 공존과 상존을 통해 상실 상황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로써 경험을 통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으로서의 적응 단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재하는 가족과 심리적인 유대를 지속해갈 수 있는 애도 과정, 의미 재구성 과정과 같은 심리적 개입이 이 단계에서 유용한 개입 방향이 될 수 있다. 표층적 성장형의 경우, 심층적 성장형과 유사하게, 심주를 구축할 수 있고 통합과 확장과 같은 성장을 지향하는 유

형이다. 그러나 현실 기반과 여건이 불안정하므로 주변 여건에 따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유형은 중재적 조건을 강화하는 심리사회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정 분석 및 유형 분석에서 상실을 성장적 적응의 맥락으로 재구성한 것은 ‘역경 후 성장’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역경 상황과 다르게 모호한 상실 상황은 역설성과 모호함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과거 한 시점에 발생한 상실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맥락이 현재의 일상과 함께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이다. 이러한 모호함을 감내하면서 ‘정-반’ 사이를 오고가며 끊임없이 조율해 가야하기에, 모호한 상실을 감내해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실의 애도 과정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화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경험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경험과 적응 과정을 탐색한 첫 번째 연구이다. 중심현상 및 관련 내·외적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모호한 상실에 관한 참여자들의 심리적 경험을 좀 더 깊이있게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상실 맥락에서 모호한 상실의 특성이 보편적인 배경정서인지를 살펴보고자 다양한 조건(연령, 성별, 상실대상, 남한 내 가족 유무 등)의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더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유사점을 중심으로 모호한 상실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분석, 내러티브 분석, 사례연구 등의 질적연구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종단적인 질적연구의 설계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발견한 요인들을 변인화하여 향후 양적 연구 및 혼합 연구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 참여자들의 경험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다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과정 또한 후속 연구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다른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명료한 상실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집단 또는 또 다른 모호한 상실 상황에 있는 집단들(예: 난민, 이주민, 유학생, 이혼 및 입양 가족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모호한 상실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모호한 상실의 또 다른 유형인 '심리적으로 모호한 상실(Psychological AL)에 대한 탐색(예: 치매환자의 가족), '이중의 모호한 상실(dual ambiguous loss)상황', 그리고 '모호한 존재(ambiguous presence)' 상황 등 모호함과 관련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후속 연구도 보다 확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경험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론적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모호한 상실 경험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모호한 상실이 주요 대상과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관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대상과 공존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는 개인 내적 특성 또는 개인 간 특성이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자녀 간 관계에서 모호한 상실의 맥락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 가족과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 양육자가 또 다른 애착 대상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진 바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70%이상이 여성이고 이 중 다수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향후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양육행동과 향후 자녀의 적응적인 발달을 연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경험과 적응의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상실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응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 방향을 제안하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의 적응 과정을 변증법적인 틀을 적용하여 구체화하려했다는 점에서 모호한 상실을 다룬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차별화된 시사점을 지닌다. 이러한 해석의 틀은 향후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모호한 상실을 경험하는 다양한 집단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호한 상실의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새터민 심리적
응을 위한 셀프파워 프로그램의 효과. 한
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73-706.
- 강준혁, 엄다원, & 이혁구 (2017). 단도박자의
생활고 극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사회복지연구, 48(4), 121-156.
- 김다운, 안지현, 이경은, 문승연, 전진용, 장혜
인, & 홍진표 (2018).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서비스 이용 실태. 대한불안의학회지,
14(1), 28-35.
- 김대웅, 이순형 (2017). 무연고 북한이탈청소
년의 부모 상실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청소년학연구, 24(7),
111-140.
- 김승현, 최빛내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지: 여성, 18(4), 533-548.
-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형들과 영향요인. 통일정
책연구, 19(2), 141-174.
- 김유정 (2011).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
으로. 통일연구, 15(1), 99-129.
- 김진숙 (2013). 장기실종아동 부모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4), 557-577.
- 김태국, 정은의 (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
험 이후 경과시간과 외상 후 성장. 한국심
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57-257.
- 김현경, 엄진섭, 전우택 (2008). 북한이탈주민
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사회복지
연구, 39, 29-56.
- 김희정, 이순형 (2016).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양상. 아동학회지, 37(1),
17-36.
- 노진원, 김현아, 김유정, 박현춘, 우종민 (2016).
텔레피 기법을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신
건강 연구 방향 도출. 신경정신의학, 55
(3), 185-193.
- 도승이 (2008). 교실토론상황에서 학생의 감정,
인지, 행동의 상호작용: 근거이론 분석법
을 통한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98-199.
- 박은미, 정태연 (2018).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37(2), 257-288.
- 손명아, 김석호 (2017).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
주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40(1), 57-81.
- 윤인진 (2000).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
사. 북한이탈주민 이해 기본교재, 북한이
탈주민 후원회편.
- 이명순, 박 경 (201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
험과 우울: 낙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239.
-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차별지각, 문화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
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59-481.
- 이혜린, 안지현, 윤세창, 정서현, 장혜인, & 홍
진표 (201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와 정신 건강 실태 변화에 대한 2 년간
추적 연구. 대한불안의학회지, 15(2), 109-
114.
- 임선영 (2013). 외상적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45-772.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 67-91.
- 정유진, 최빛내 (2017). 탈북에서 입국까지의 기간 및 복송경험이 탈북 여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1), 47-67.
-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편집위원장: 정영태, 215.
- 정진경, 조정아 (2008).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487-518.
-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1), 1-19.
- 조영아 (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 조영아 (2015).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 경험 과정. 여성연구, 37-82.
- 조영아, 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09-527.
- 조영아, 김연희, &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하나, 최연실 (2013).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족상실로 인한 우울감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1327-1345.
- 진미정, 김상하 (2018).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 특성과 유형. 대한가정학회, 56(3), 317-330.
- 최현욱, 손정락 (2011).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K-MBSR)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469-482.
- 한나, 이승연 (2015).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485-512.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33-54.
- 한인영, 이소래 (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121-142.
- Affifi, T. D., & Keith, S. (2004). A risk and resiliency model of ambiguous loss in postdivorce stepfamilies.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4(2), 65-98.
- Betz, G., & Thorngren, J. M. (2006). Ambiguous Loss and the Family Grieving Process. *FAMILY JOURNAL -ALEXANDRIA VA-*, 14(4), 359-365.
- Boss, P. (1999). *Ambiguous loss: Learning to live with unresolved grief*. Cambridge, MA, US: Harvard

- University Press.
- Boss, P. (2006). *Loss, trauma, and resilience: Therapeutic work with ambiguous loss*. WW Norton & Company.
- Boss, P. (2007). Ambiguous Loss Theory: Challenges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56(2), 105-111.
- Boss, P. (2016). The Context and Process of Theory Development: The Story of Ambiguous Los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8(3), 269-286.
- Boss, P., Beaulieu, L., Wieling, E., Turner, W., & LaCruz, S. (2003). Healing loss, ambiguity, and trauma: A community-based intervention with families of union workers missing after the 9/11 attack in New York C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4), 455-467.
- Boss, P., Bryant, C. M., & Mancini, J. A. (2016).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approach*. Sage Publications.
- Boss, P., & Yeats, J. R. (2014). Ambiguous loss: a complicated type of grief when loved ones disappear. *Bereavement Care*, 33(2), 63-69.
- Chung, R. C.-Y., & Kagawa-Singer, M. (1993).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Science & Medicine*, 36(5), 631-639.
-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Etikan, I., Musa, S. A., & Alkassim, R. S. (2016). Comparison of convenience sampling and purposive sampling. *American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Statistics*, 3(1), 1-4.
- Faber, A. J., Willerton, E., Clymer, S. R., MacDermid, S. M., & Weiss, H. M. (2008). Ambiguous absence, ambiguous presence: a qualitative study of military reserve families in wartim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222-230.
- Falicov, C. J. (2002). Ambiguous loss. *Latinos: Remaking America*, 274-288.
- Falicov, C. J. (2005). Ambiguous loss: Risk and resilience in Latino immigrant families. *The new immigration: An interdisciplinary reader*, 197-206.
- Juang, L. P., Simpson, J. A., Lee, R. M., Rothman, A. J., Titzmann, P. F., Schachner, M. K., . . . Betsch, C. (2018). Using attachment and relational perspectives to understand adaptation and resilience among immigrant and refugee youth. *American psychologist*, 73(6), 797.
- Lee, R. E., & Whiting, J. B. (2007). Foster children's expressions of ambiguous los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5(5), 417-428.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Sage.
- Luster, T., Qin, D., Bates, L., Johnson, D., & Rana, M. (2009). The Lost Boys of Sudan: Coping with ambiguous loss and separation from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2).
- Padgett, D. K. (2016).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Vol. 36): Sage Publications.
- Pérez, R. M. (2015). Cuba no; Miami sí: Cuban Americans coping with ambiguous los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 25(1), 50-66.
- Robins, S. (2010). Ambiguous loss in a non-Western context: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n postconflict Nepal.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59(3), 253-268.
- Solheim, C., Zaid, S., & Ballard, J. (2016). Ambiguous loss experienced by transnational Mexican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55(2), 338-353.
- Solheim, C. A., & Ballard, J. (2016). Ambiguous loss due to separation in voluntary transnational familie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8(3), 341-359.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In: Thousand Oaks, CA: Sage.
- Stroebe, M.,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 Stroebe, M., & Schut, H. (2015). Family matters in bereavement: Toward an integrative intra-interpersonal coping model.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6), 873-879.
- Wahlig, J. L. (2015). Losing the child they thought they had: Therapeutic suggestions for an ambiguous loss perspective with parents of a transgender child. *Journal of GLBT Family Studies*, 11(4), 305-326.

1차원고접수 : 2019. 04. 19.

2차원고접수 : 2019. 11. 01.

3차원고접수 : 2019. 12. 30.

최종게재결정 : 2019. 01. 07.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Ambiguous Loss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Kyong Ah Kim¹⁾ Hyein Chang¹⁾ Jin Yong Jun²⁾ Jin Pyo Hong³⁾

¹⁾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Medical Affairs,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³⁾Department of Psychiatr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Ambiguous Loss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NK) defectors and its relations to their adjustmen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We also aimed to identif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may affect this process, and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and potential directions to promote NK defectors' adaptation. An Ambiguous Loss, defined as an unclear loss in view of paradox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esence or absence, is characteristic of NK defectors' psychological experience because their families are assumed to be alive in North Korea but not for sure, which implies that the loved one may be psychologically present but physically absent. For this study,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for 11 participants who have remaining families in NK, and the data gathered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Strauss and Corbin, 1990; 1999).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rocess may be summarized as 128 concepts, 39 subcategories, and 19 categories. We presented 'Living with Ambiguous Loss by Recognizing Coexistence' as a core category that may encompass all concepts observed.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ambiguous loss, boundary ambiguity, grounded theory, qualitative study